

북한에서의 지속가능한 재조림사업 —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국제 협력

한국 사무소



북한의 자연경관에서는 황폐화된 산과 침식된 언덕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북한 농촌 주민들의 곤궁함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북한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재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전과제

철의 장막의 붕괴는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한국 전쟁 및 한반도의 분단 이후로 소련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소련의 지원이 끊기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으로 인해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최대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재난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 것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 그리고 동력을 상실한 북한의 중앙계획경제로 인한 국가배급제도의 붕괴였다. 이러한 재앙이 남긴 영향들은 현재까지도 북한 전역에서 뚜렷하게 목격된다. 황폐화된 산비탈들은 주민들이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북한 전체 산림지대의 약 40퍼센트가 사라졌다(세계은행 2017).

지역 주민들의 빈곤뿐만 아니라 행정적 관리의 실패, 의사결정 계층의 전문지식 부족 그리고 과학 분야의 교류 부족 등으로 인해 이러한 환경 재해와 인도주의적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의 산림지대가 급격히 황폐화된 데에는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 외에도 건강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식 부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는 이러한 분야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조림사업이 국가 차원의 목표로 설정되기도 했다. 국토 내의 산림지대는 이제 홍수 및 작물손실 그리고 기근의 피해를 막아줄 자연보호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의 사례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수십

년 간의 고립으로 인해 북한은 여전히 다른 국가의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현대적인 전문지식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마을 - 경작지 확보를 위한 지나친 산지 벌목은 토양 침식과 홍수피해 방지기능의 감소를 유발한다.

해결방안

한스 자이델 재단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과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산림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였으며, 북한을 국가 간 협력체제에 편입시키고 북한과 국제기구들 간의 교류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후원한 산림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다수의 연수 프로그램들과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젊은 북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일에서의 산림교육을 통해 산림



최근 몇년간 현대 기술의 적용을 통해 산림자원 조사방식이 바뀌었다.



다수의 독일 산림 전문가들이 북한의 조림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분야를 국제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들을 통해 산림부문은 제도 및 전문지식 차원에서 개편될 것이며, 환경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새로운 시범사업과 추가적인 협력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또한 세미나 및 연수 등의 방식을 통해 현대적인 기준에 따른 산림자원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성과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가 2014년에 시작한 유럽 연합의 산림 프로젝트와 시범사업들은 이미 초기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조림을 위한 교육

공동 산림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연구자들 및 전문가들에게 산림분야의 현대적인 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방은경 북한 산림경영연구소(FMRI)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센터가 설치되었고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조림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른 사업들을 위한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협력기관인 북한 산림경영연구소(FMRI)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MoLEP)과의 전문분야 협력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독일 산림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몽골과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연수 활동들을 통해 국제적 경험교류가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산림당국의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협력기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독일 에버스발데 대학

Further Information:

@ info@hss.or.kr
www.hss.de/korea
https://www.facebook.com/HannsSeidelFoundationKorea



Find more
Factsheets here.

Imprint:

Hanns-Seidel-Stiftung e.V. | Lazarettstr. 33, 80636 Munich
Tel. 089/1258-0 | E-Mail: info@hss.de | Online: www.hss.de
Chairwoman: Prof. Ursula Männle, State Minister (ret.)
Secretary General: Dr. Peter Witterauf
Director of IIC: Dr. Susanne Luther (Editor-in-Chief, V.i.S.d.P.)
Head of Press and Public Relations Unit: Hubertus Klingsbögl
Contact: iiz@hss.de | As of: 01/2019